신학 학술전문지의 필요성

편집장 김 홍 석

「고려신학보」 제11집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동안에 느낀 점은, 한 권의 책을 꾸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감하였다.

바쁘신 중에서도 本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고를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이 책을 바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대폭적인 예산의 증액을 배려해 준 원대연學友會長과 運營委員들 그리고 이를 承認해 주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밀어준 代議員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이번에 출판한 제11집은 '韓國教會와 組織神學'을 特輯으로 엮었다. 독자들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편집자의 노력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 대학 出版部의 活成化를 위한 노력이 교수·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活字化되지 않은 "소리"는 그 파장이 작을 수 밖에 없고, 남의 것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인색한 神學界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神學專門 學術誌를 새롭게 創刊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보았으면 한다. 이 작업은 학교당국, 교수,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급히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編輯室에서 어둠을 밝히면서 함께 편집·출판의 어려움을 감당한 김윤근, 배정권, 남일우學友의 수고는 이 책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제12집은 시간과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다 더 유익하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고려신학보 제11집 (1985. 겨울) PP. 9~18

조직신학의 임무

이 근 삼

조직신학의 임무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계에 관한 진리를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이 진리는 계시의 자료에서 얻게되며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모든 媒体를 포함한다.

1. 組織神學과 一般啓示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되 인간들이 대하는 그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그의 主權的 意志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창조가 신의 의지와 능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의 영광이 그의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그 흔적을 남기게 되었고 우리 인간이 그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타나심을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啓示 또는 一般啓示가 조직신학에서 취급하는 啓示의 資料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시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시 19 : 1)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여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시 97 : 6)고 하였다.

하나님 자신은 不可見的 存在이지만 現象的 實在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래서 '창세로 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롬 1 : 20)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으로 알게 되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臨在 앞에 저희가 저희들의 不信을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창조가 외적으로 가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체험이 있다. (골 2 : 15)

그러므로 이런 啓示의 面들이 철학과 과학의 분야일 뿐, 神學의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신학을 위한 계시적 주요 양상은 성경에 기록된 特別啓示이다. 그러나 성경의 이 계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가운데 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황속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계시만을 취급하면서 우리 삶의 상황에 가득찬 계시적 자료를 무시한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사실, 自然神學이 조직신학의 한 분야로나 기초로 하여 독립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특별계시가 일반계시와 따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신학의 지나친 요구나 독립적 역할을 우리가 취급할 조직신학의 영역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自然」이라는 말을 창조역사와 일반적 섭리와 우리 인간의 존재구성에 주어진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자연신학을 바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리를 진술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주론적, 목적론적 논증이 부분적으로는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2. 組織神學과 特別啓示인 聖經

계시의 주요 자료는 성경이다.

조직신학이 그 자체의 임무에 충실하려면 성경을 성경의 주장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 자체는 啓示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啓示的 言語가 아니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이란 말은 잘못 사용된 것이다.

예를 들면, Emil Brunner가 성경을 계시의 증거(the Witness to Revelation)이지 계시자체는 아니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계시에 대한 제일증거(the Primary Witness)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적 계시증거에 대한 適, 不適을 비판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1]

Karl Barth도 같은 주장을 전개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말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교회는 성경 안에서 신적 계시의 증거를 받는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면 우리는 성경을 신적계시의 증거라고 불러야만 한다는 사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의 제약을 갖는데 그것은 성경을 계시에서 구별하는 것이다. "증거는 그것이 증거하는 것과는 절대로 동일한 것이 아니다."[2] 라고 하였으니 이 입장은 우리가 취하는 것과는 다르다.

1) Emil Brunner, The Chritian Doctrine of God. Vol.

2) Karl Barth, Church Dogmatics, 1/2, p. 463.

물론 성경에는 증거가 있다. 그런데 차이점은 성경의 증거는 계시적이고 하나님이 성경의 증거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단순히 성경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서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적 증거로서의 증거를 의미한다. 즉,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媒體를 통해서 생긴 증거이며 사람의 증거가 하나님 자신의 증거라는 유일한 양식에 의해서 된 것이다.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딤후 3 : 16)
>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벧후 1 : 21)

성경에 대한 이와같은 판단의 차이는 근본적이고, 성경에 대한 이런 대립된 견해에서 나오는 신학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이 계시적이고 따라서 영감된 계시로 보아질 때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과 同一視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촛점이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안에서(in), 계시를 가지고(with), 우리를 만나신다, 우리는 계시로 말미암아(by)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 지를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 계시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영광의 광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골 1 : 15, 히 1 : 3) 성경은 유일하신 본체이신 그분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啓示를,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우리가 특별계시의 集合된 책이 성경이라는 것과 성경은 하나님의 神託이며 성경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不可理解的인 존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神意에 대한 지식과 성취

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들을 보여 주시는 것이라는 전제를 바로 가질 때 모든 학문 가운데서 조직신학은 가장 고상한 학문으로 보여지며, 냉담한 것이 아니고 기이함을 노래하며 우리의 능력을 가장 신성하게 사용하는 학문이 될 것이다. 이 학문의 영역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고 다른 학문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의 부요함을 그 特有한 方法과 機能으로 논리 정연하게 包括的으로 진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학문중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신학의 모든 다른 분야들의 그 연구결과들은 조직신학에 공헌하게 되므로 조직신학은 이 모든 분야에서 가져온 모든 지식의 부요를 더욱 包括的 組織化에 이르게 한다.

성경에 쌓인 특별계시는 구속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적 성취의 역사를 마련할 뿐만아니라 이 구속적 사건들의 의미만을 우리에게 해석해 줄 뿐만도 아니고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성취하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不可欠의 기관도 되는 것이다.

성경없이 우리는 구속적 계시를 대할 수 없고 구속의 경험이 있을 수 없다. 성경없이는 죄에서 오는 어두움이 이해를 너무 어둡게 하므로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마련한 특별계시에서 추상적으로 자연계시를 해석하는 시도의 잘못됨을 폭로하는 이유인 것이다. 자연신학은 조직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분야가 아니고 독립된 학문 분야는 아주 못되는 것이다.

3. 組織神學과 聖靈

특별계시가 구속적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에 또 하나의 推論이 있는데 그것은 신학자가 성경이 계시이며 구속적 능력임을 알지 않고는 神

學作業에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조직신학에 적지않는 공헌을 남겼고 또 지금도 공헌할 수 있을 줄로 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성령의 照明없이 正當하게 해석될 수 없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케 하는 內的 證據없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연구될 수도 없는 것이다.

조직신학은 그 자체가 계시가 아니며 성경과 함께 나란히 둘 啓示의 附錄도 아니다. 조직신학은 계시의 사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명한, 하나의 임무이며, 때로는 하나의 필수요건이다. 그것은 기독교가 역사속에서 자라온 성취인 것이다. 이렇게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교회안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제 1 세기 교회는 그것을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dogmatics'라고 하는 것이 발전한 과정에서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조직신학이 교회역사 속에서 발달한 사실은 어떤 신학자나 一連의 신학자들이 산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Athanasius, Augustine, Calvin 등의 신학자들이 큰 공헌을 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나 그들의 업적이 저들이 쌓았던 상황속의 역사, 특히 교회사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는 역사에 영향을 끼친 것을 무시할 것은 아니나 역사는 저들의 업적에 영향을 주었고 그것은 저희가 역사속에 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성령의 臨在와 役事의 교리이다.

그리스도의 約束에 따라서 성령이 사도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셨다 (요 16 : 13) 그래서 저들의 특유한 사명과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교회사의 모든 世代에 있어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이해와 표현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인

교회에 주신 것이다. 이 不斷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세기 (世紀)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個人神學者들은 진리의 영이 교회에 주신 진리의 이해를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떠나서 생각되어서는 안되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의 천사들이 그의 오른손 편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임재의 용어로 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고 그에게 있는 이 충만함에 있어서 그는 교회에 말씀하시므로 교회는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의 知識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직신학을 보아야 하고 또 그 진행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教理史는 점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발전이 결코 종점 (終点) 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조직신학은 결코 완성된 학문이 아니며 그 임무가 완성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발전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계속 向上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학적 후퇴의 시기도 있었다. 또한 교회가 어떤 한 세대에 있었던 것 처럼 언제나 이해와 충성과 경성과 실천으로 신학적 전통을 잘 지킨다는 것도 아니다. 섭섭하게도 발전하는 교회가 종종 진전보다는 후퇴를 보이며 신학적 임무가 크게 변경된 경우가 있다.

확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 건물이 그 기초가 무너지기도 했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순다." (시 74 : 6)

그러나 어떠한 시대나, 장소에서 있었던 교회의 불충성은 연장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주님의 감독과 성령의 인도로 조직신학이 一致하는 不斷한 發展을 無効化시키지는 못했다. 이와같은 발전은 교회의 文書에 永久히 비축되어서 쇠퇴하는 시기에도 전통적인 그루터기가 되곤 했었다. 역사는 이렇게 과거에 비축한 것이 오랜 망각 후에 신학적 부

흥의 때에 나타나 새로운 의미와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劃期的인 공헌과 전진의 시기들이 있었다. 예를들면, 16~7세기의 종교개혁은 틀림없이 가장 주목할만 하다. 기독교 신학의 대업적(Opus magnum)이 교회에 주어진 것은 그때였다. 信條作成이 절정에 이른 것도 그때이다. Protestant 교회들의 신학이, 신학연구가 뒤따르는 열심과 헌신을 증거해 준다. 그때는 신학의 정확성과 신학작성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신학은 후퇴를 장려하며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므로 신학적 이해와 제시에 획기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다.

4. 組織神學과 異端

이단신학의 보급은 신학발전에 깊은 영향을 행사하였다. 그것은 교회와 계시에 대한 더 주의깊은 검토를 강요했고, 진리를 세워서 과오(過誤)에 반대하고 잘못을 시정하고 성도들을 일깨워 불신앙의 침입을 대항하는 경계심을 크게 일으켜 준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학이 반드시 긍정적이어야만 하고 부정적인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만일 죄와 죄의 경향이 없었다면 부정적인 것이 있었을 리가 없다. 과오가 없었더라면 논쟁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계시는 實在的이고 또 죄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마도 교회가 대면했던 가장 치명적인 과실은 아리안파(Arianism)였을 것이다. 첫번째의 세계적 신조는 교회의 기초를 공격하는 자에 대한 교회의 公的인 답변이었다.

그리스도의 神性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확신하는 자로서 AD.325년에 Homoousios 句節을 固守한 니케야의 교부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교회의 信仰告白은 균형적이었지만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은 그 神性의 榮光을 원하신다. 그러나 한 시대가 아무

리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 왔거나, 위대한 인물들이 큰 공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학적 건설이 확정된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

靜滯된 傳統主義는 위험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위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歷史的 淀泊地를 버리는 위험도 안고 있다. 歷史神學徒는 칼빈이 종교 개혁 당시에 야기된 聖子의 신성에 관하여 聖子의 自存性을 주장하는데 열광적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칼빈은 너무나도 성경의 학도였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한 니케야 正統派라고 생각되는 주장을 따를 수 없었다. 니케야信條의 Homoousios을 포함한 니케야教父들이 같은 信條에서 말한「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very God of very God)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그는 동의할 용의가 없었다.

이 표현은 正統派 사람들이 틀림없이 니케아 교부들의 기록에서 나온 증거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든가를 전연 생각지도 않고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의도하는 뜻은, 聖子는 그의 神性을 聖父로부터 얻었다. 그러므로 성자는 그 자신이 신일 수 없다. (the son derived his deity from the Father and that the Son was not therefore *αὐτοθεος*) 라는 것이다 즉, 칼빈은 주장하기를 位的區別에 있어서 성자는성부로부터 나오나 神性으로서는 성자는 자존 (Self-existent) 하신다고 한 것이다. (기독교강요 I : 13 : 19-29)

이 입장은 니케야 전통에는 반대된다. 그러나 성자는 그 자신이 神이 아니다. (the Son was not *αὐτοθεος*) 라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고 예수의 神性에도 반대되기 때문에 칼빈이 자기 생각을 굽히지않은 것은 매우 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칼빈의 이 논쟁은 성경만이 유일한 정확무오한 규범임을 증명하는 신학형성에 필요한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이다. "改革教會는 항상 改革

한다." (ecclesia reformata reformanda est)함이 참인것과 같이 이 "改革神學도 항상 改革한다"함도 참이다.

어느 세대든지 그 神學的 遺産에 依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자체를 위하여 神的 啓示의 부요함을 개발하기를 거절할 때에 벌써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며 이단이 다음 세대의 몫을 [illegible]게 될 것이다.

결코 어둠의 권세는 놀고 있지 않고 부단히 도전해오고 있다. 우리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가져야 하는데 신학지식의 비축이 시대마다 공헌이 있어야 그때 그때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시대마다 복음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복음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증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신학이 동적한다. 과거 위에 세우지 않은 신학은 歷史에 대한 빛을 무시하고 현재가 역사로 말미암아 조건지워진다는 사실을 거부한다. 그리고 과거에 의존하는 신학은 현재의 도전을 회피한다.

우리 正統的 改革主義 전통에는 할 일이 아직 많이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는 神學徒들에게 무한한 계시의 宝庫를 깊이 이해하여 신의 영광을 더욱 충만하게 나타내고, 찬양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신학도들은 겸손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접하며 성령의 照明으로 말씀을 깊이 깨달아 教會와 世界에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것이다.〈교수. 신학박사〉

교회문제연구소 編
교회문제연구 제 4 집 (85. 12近刊)
부산 : 고신대학 출판부, 1985. 신국판 253쪽 값 3,000원

고려신학보 제11집 (1985. 겨울) PP. 19~38

세속적 인간학에 대한 조직신학 인간론의 멧세지

이 보 민

서 론

조직신학은 전통적으로 제3의 각론(各論)으로서 인간론(Anthropology)을 취급한다. 주로 우리가 조직신학의 인간 "론"(論)을 말하고 있어서 조직신학이 아닌 세속적 인간"학"(學)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느끼고 있지만, 사실 서양 언어의 표현에서는 조직신학의 인간 "론"이나 세속 철학에서의 인간 "학"이나 꼭같은 Anthropology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직신학의 인간론이 세속적 인간학과 무관할만큼 다른 것일 필요가 없다. 즉 조직신학은 인간論을 취급하니까 세속적인 인간學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잘못됐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신학의 인간론은 세속적 인간학에 많은 관심을 표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세속적 인간학을 향한 message를 조직신학의 인간론이 담아야 한다.